

 국토교통부		보도참고자료	
		배포일시	2019. 10. 1.(화) / 총 2매(본문2)
담당 부서	신공항기획과	담당자	·과장 정용식, 사무관 전 진, 주무관 김정현 ·☎ (044) 201-4138
보 도 일 시		배포 즉시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	

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실시된 소음분석은 올바르게 진행되었습니다.

- 제주 제2공항과 관련하여 일부 반대주민이 주장하는 ‘소음 분석에 오류가 있었다’ 라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며,
 -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과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검토된 항로는 항공기 운항 안전에 문제가 없고, 소음이 최소화 되도록 계획되었습니다.
 -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과정에서 실시한 바람분석은 항공기 운항에 우려가 있는 측풍 범위 등을 검토하기 위해 실시하였으며,
 - 성산읍 입지의 경우 현 남북방향 활주로 방향이 측풍(20노트 기준 활용률 95%이상)에 의한 운항 안전성 우려가 없다고 검토되었습니다.
 - 활주로 위치 선정이후 소음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비행경로를 계획한 결과에 있어서도
 - 바다방향으로 이착륙하는 것이 소음피해 최소화 측면에서 유리하고 설계기준*(배풍(항공기 진행 동일방향 바람) 5노트 이하)에 따라 남측 바다경로 이착륙 경로를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제시되었고,
- * 비행장시설 설계 매뉴얼(2장, 바람) : 5노트 까지의 바람은 무풍으로 보고되며, 공항 계획을 위한 이륙 성능곡선은 무풍에 대하여 작성

- 그 결과, 남측 바다방향 이착륙 경로를 최대 80%로 활용*할 수 있다고 분석되었습니다.

* 5노트 이상 북풍이 연간 20% 발생→ 소음 최소화 고려시 북측방향은 20% 이용, 남측 바다방향 80% 이용

- 전략환경영향평가시에는 기본계획에서 계획된 비행경로안으로 소음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.

- ‘남측방향 이륙/ 북측에서 착륙 80%, 북측방향 이륙 / 남측에서 착륙 20%’의 기본계획 내용을 활용하는 것으로 적시했으나,

- 이를 바람 방향으로 표현하는 과정에서 남풍과 북풍을 반대로 적시한 오타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- 오타에도 실제 분석시 남풍 80%, 북풍 20%가 적용되었고, 분석결과를 확인한 결과, 소음 평가결과에 오류는 없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

- 향후,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완료되어 협의결과를 공개할 시 정오표도 함께 공개할 예정입니다.

수정 전	수정 후
활주로 이용방향은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및 기본계획 분석 내용에 따라 북풍(80%) : 남풍(20%)를 적용하였음	활주로 이용방향은 사전타당성 연구결과 및 기본계획 분석 내용에 따라 남풍(80%) : 북풍(20%)를 적용하였음

< 관련 보도내용 (연합뉴스, 9.30.) >

- ◆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비상식 오류, 졸속 작성 증거
 - 반대 단체 주장 “이착륙 방향, 소음 등고선 정반대 표기”
 - 맞바람 방향과 항공기 이착륙 방향이 어긋난 오류



이 보도참고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국토교통부 신공항기획과 전 진 사무관(☎ 044-201-4138)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